

순천시 지역기업과 손잡고 바이오산업 육성 본격화

국가 R&D 사업 4건 선정
고부가가치 사업화 지원 활발
신소재 개발, 시제품 생산까지
오늘 바이오 기술지원 컨퍼런스

순천시가 지역 성장을 이끄는 유망 산업으로 바이오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순천시는 글로벌 탄소 중립 기조, 코리나19의 재확산 등의 상황에서 바이오산업이 지역 성장을 이끄는 주요 동력으로 보고 순천시 출연 연구기관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 연구센터를 통해 바이오산업을 성장시켜나갈 방침이다.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 바이오협회 발표 2021년 실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 규모는 20조 99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1%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순천시 출연 연구기관인 재단법인 순천바이오 헬스케어연구센터(센터장 조태훈, 순천시 일자리 경제국장)는 2022년 국가R&D사업에 총 4건이 선정되어 성공적인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새 싹땅콩을 이용한 표준화 발효소제 공정개발과 피부개선 기능성검증 및 상품화', '데커신 및 유용 성분 정제기술을 활용한 노화개선용 화장품 소재 기능성 소재개발 및 사업화'라는 2가지 과제 수행을 통해 천연물의 기능성 검증 및 기업의 고부가가치 상품화를 위한 사업화 지원을 활발히 수행 중이다.

또 해양수산부 유망기술 Scale-up 사업분야에 공모해 '해조류 부산물을 활용한 양액배제 발효 배양액 개발 및 산업화', 산업통상자원부 이전기술사업과 R&D분야에 공모해 '수산부산물의 발효 공정을 통한 화장품 원료 생산 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하며, 기존 동부권 농가들뿐 아니라 서부권에 위치한 어업법인들까지 사업성을 연결시켜 성과를 확장시킬 예정이다.

더불어 관내 인프라를 활용하여 천연물, 바이오 소재 관련 기업(중소, 벤처 등)에 사업화 기술 개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수요 및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기업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2022년 기능성 천연물소재 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했다.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는 전라남도 천연물 바이오산업을 선도·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순천 관내 7개 기업의 7개 분야(건강기능식품 1종, 화장품 5종, 생활용품 1종)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진행해 오고 있다.

또한 순천재래고 고들빼기, 순천 지역 매실 소재에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전환 기법을 접목시킨 신소재 개발이 시제품 개발지원까지 이어지는 등 탁월한 성과를 보였다.

2022년 사업 성과를 토대로 2023년에도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는 전남 시·군 주도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관내 4개 기업 대상

으로 순천앤매실-매실유산균발효액, 순천고들빼기 영양조합-고들빼기효모발효액, 마린테크노-어 피부산물 발효추출단백분말, 나눔바이오-스마트 팜 새싹땅콩 발효추출단백분말 제조 기술 등을 보급했다.

시는 기능성 검증, 시험분석의뢰 등 23건 지원을 통해 6억원에 달하는 연구개발 수익을 창출하여 지역의 기업 및 농가들에 지원을 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지역기업과 농가들에 대한 지원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바이오소재 기술지원 컨퍼런스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27일 순천 에코그라운드 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바이오소재 기술지원 컨퍼런스는 2023년도 중소기업부 공모사업인 시군연구산업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협의 목적을 포함하며,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지역연구사업모델 경연대회, 기업맞춤형 컨설팅 등의 내용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기업, 지자체, 연구기관의 효율적 사업 운영 협력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호 '어린이 안심 정류장' 내년 아파트 3곳 확대 설치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은 지난 22일 광양읍 송보7차아파트 입구 앞 광장에서 '어린이 안심 정류장 제2호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사업은 2021년 당초 '안심! 어린이 승하차장 설치 지원' 시범사업으로 도입돼 중마동 성호아파트 1개소에 설치했으며, 올해는 '어린이 안심 정류장'이라는 명칭을 도입해 광양읍권 공동주택 1곳을 공모 선정해 지원했다.

아파트 입구에 설치된 정류장 내부에는 냉난방기, 자동문, 의자, CCTV가 설치돼 더위와 추위, 눈과 비바람을 피할 수 있어 부모님과 아이들의 안전한 대기 공간이자 쾌적한 쉼터로 활용될 예정이다.

본 사업은 지난 8월 사업공고를 시작으로 광양읍 권역 3곳의 공동주택이 신청했고, 5개의 심사 부문을 거쳐 1곳을 선정해 10~11월 행위허가 승인과 부수 제작을 거쳐 지난 15일 설치했다.

박을미 보육재단 이사는 전달식에서 "곳은 날씨와 관계없이 부모님과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형 정류장인 만큼 뜻깊게 활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광양시의 자랑스러운 어린이 보육재단을 많이 사랑해주신 덕분에 훈훈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있다"며, "어린이 안심 정류장과 같은 사업처럼 앞으로도 보육재단과 함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시정 역량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은 내년엔 지역 내 공동주택에 어린이 안심 정류장을 3개소로 확대해 모든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절대금지구역 제한 없애고 일반금지구역 대상서 제외 여수시 주정차 신고제 개선

여수시가 내년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를 대폭 강화한다.

여수시에 따르면 변화하는 주정차 현장여건을 반영해 내년 1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운영 방식을 개선·시행한다.

우선 기존 일반주정차금지구역인 황색 실선과 점선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교차로 모퉁이에 대한 신고는 현행 1인당 1일 5회에서 무제한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제한 횟수를 없앴다.

시는 사고위험이나 차량 소통에 문제가 없는 일반금지구역을 신고대상에서 제외해 과태료 등 주민 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절대 금지구역에 대한 신고를 강화해 주민신고제 본연의 취지에 집중한다.

이와 함께 기타 주정차금지구역인 보도, 안전지대, 황색복선, 이중·중앙선 주차에 대한 신고 요건도 기존 5분에서 7분 간격으로 늘어난다. 시에서 운영 중인 CCTV 단속 장비와 통일성 있게 개선한다.

불법 주정차 5대 절대 금지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교차로 모퉁이는 변경 대상에서 제외되며, 종전과 같이 운영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기존 주민신고제 운영 중 제기됐던 문제점을 개선해 변화하는 주정차 현장여건과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자체기준을 확립했다"며 "올바른 주차 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희 기자·동부취재본부장



하얀색 옷 갈아입은 보성 대한다원 겨울 장관 연이은 폭설에 푸른색 대신 하얀색으로 옷을 갈아입은 보성군 명소 대한다원 일원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보성군 제공>

곡성군 청년 인구 25%...주택 소유 비율 17%

청년정책 수립 위한 통계 조사

곡성군이 호남지방통계청과 협업해 '곡성군 청년통계' 결과를 내놨다.

이번 통계는 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9세에서 49세 이하 연령의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항목은 인구·가구, 경제, 일자리, 창업, 복지, 건강 총 6개 분야 82개 지표로 구성됐다.

곡성군의 청년인구는 6931명으로 곡성군 전체 인구 대비 25.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곡성군으로 전입한 청년인구는 1257명으로 청년인구 대비 18.1%를 차지했다.

청년의 51.1%가 현재 배우자가 있는 상태이며

곡성군 청년 취업자는 4500명으로 69.2%의 고용률을 나타냈으며, 주요 종사산업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46.9%), 주요 종사직업은 사무종사자(22.4%)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1562명으로 청년인구의 22.5%를 차지한다. 그 중 243명(15.6%) 이상

업자를 새로 등록했다.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이 18.0%로 가장 많았다.

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는 334명으로 청년인구의 4.8%를 차지하며, 장애인 등록인구는 361명으로 5.2%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98.6%인 6837명이며, 78.8%인 5212명이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에 가입했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곡성군은 이번 통계를 잘 활용해서 효과적인 청년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곡성군 청년통계는 지난 2019년 최초 조사를 시작으로 3년마다 실시한다. 2022년 제2회 곡성군 청년통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곡성군청, 호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kwangju.co.kr

곡성군, 상수도 누수 신고자 5만원 심청상품권 포상금 지급

곡성군이 상수도 누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곡성군에 따르면 군이 운영하는 상수도 누수 신고 포상금제는 상수도 누수 발생 지점을 최초로 신고한 군민에게 5만원 상당의 곡성심청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누수 신고 대상은 곡성군이 관리하는 지방상수도 급·배수관로, 도로만 해당된다.

지급 제의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 수행 중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 상수도 관로 또는 시설물을 파손한 자, 본인의 대지 내 급·배수관 누수를 신고한 자, 각종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 관계자인 경우다.

누수 신고는 곡성군 상수도사업소 상수도팀(061-360-8184~8186)에 하면 된다. 담당 공무원이 누수 지점을 확인하고 복구 공사 완료 후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빠른 누수 신고는 신속한 관로 보수로 이어진다. 수도물을 절약하고 유수율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므로 군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다"라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kwangju.co.kr

구례군 옛 문척교 철거 확정...반대 주민 대표단과 협약 체결

보도교 설치·편의시설 확충 내용

구례군이 섬진강 옛 문척교에 대한 철거 논란(광주일보 2022년 8월 16일자 14면)에 마침표를 찍었다.

구례군은 주민들과 최종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옛 문척교를 철거한다고 밝혔다. <사진>

군은 지난 7월부터 옛 문척교 철거를 반대하는 "옛 문척교 보전을 위한 범국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공청회, 간담회, 주민설명회 등 수십 차례의 만남과 협의를 거친 끝에 21일 구례군청 군수실에서 협약체결을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노후된 옛 문척교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보도교를 설치하는 것을 비롯해 ▲신규로 설치될 보도교 형식 및 이용방안 ▲인근에 조성된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연계방안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편의시설 확충 ▲옛 문척교를 회상할 수 있는 문진정 및 기념비 이설 등으로 구례군과 영산강유역환경청, 대책위가 함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옛 문척교 철거를 위해 민·관 상생의 마음으로 함께 협의해 주민 주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보도교 설치와 함께 통행불편 해소방안, 구성마을 주변 SOC 사업과 편의시설 마련 등 해야 할 일이 많으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리다" 고 당부했다.

한편 옛 문척교는 1972년에 준공되어 50년이 경과한 노후된 교량이며, 여름철 집중 호우 시 침수가 반복되는 교량으로서 섬진강 국가하천관리 부처인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철거를 결정해 지난 4월에 착수를 했으나, 해당 마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추진되지 못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LG화학·YMCA 여수 바닷가 쓰레기 줍고 LED 전구 구입비 기부



"제가 주운 쓰레기가 저소득 가정의 불빛이 된다고 생각하니 뿌듯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참가하고 싶어요."

LG화학 여수공장(주재임원 윤명훈 전무)과 여수 YMCA가 '여수 쓰담' 행사의 일환으로 바다쓰레기를 줍고, LED 전구 구입비 1500만원용을 기증했다.

LG화학 여수공장은 최근 YMCA 청소년수련관에서 지역 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1500만원 상당의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사진>

에너지 취약계층은 소득의 10% 이상을 광열비로 지출하는 저소득층으로, 해당 후원금은 가정 내 LED 전구 설치 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LG화학 여수공장은 지난날 23일 여수 무술목 해변에서 지역청소년 100여 명이 참여한 '여수 쓰담(여수의 쓰레기를 담다)' 활동을 통해 후원금을 조성했다. 참가인원과 활동 거리를 기준으로 1인당 3만원의 후원금이 책정됐다.

여수공장은 전달식을 가진 이후에도 목표 참가인원 500명 달성을 위해 해양정화 활동을 추가로 시행 예정이다. 지역 내 에너지 취약계층(100가구)을 위한 LED 전구 설치와 생활품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여수 쓰담은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청소년들의 환경 인식을 높이고자 LG화학 여수공장과 YMCA가 함께 기획한 '플로킹(컬으면서 쓰레기 줍는 행동)' 봉사 활동이다.

해안가에 버려진 일회용품, 페스티코드 등 해양쓰레기를 청소년들이 직접 수거해 기부금으로 적립하면서 환경 문제의식과 봉사 정신을 함께 고취할 수 있다. /여수=김창희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